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241274 부당이득금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김○○

피 고 1. ○○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박○○

2. ○○○○○○공단

3. ○○○○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이○○

4. B

5. C유한회사

6. ○○○○○○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송○○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피고 C유한회사는 원고에게 20,615,86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24. 11.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시, ○○○○○○○공단, ○○○○기금, B, ○○○○○○○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유한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 ○○○○○○○공단, ○○○○기금, B,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시는 129,597,980원, 피고 ○○○○○○○공단은 8,556,310원, 피고 ○○○○기금은 27,831,423원, 피고 B는 17,523,488원, 피고 ○○○○○○○공사는 30,099,16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는 1순위 권리자로 채권 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았고 피고들은 후순위 권리자로서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



매'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 중 ○○시 D 대 2480㎡에 합병된 같은 곳 E 임야 1456㎡의 근저당권자였던 F은 자신의 근저당권이 위법하게 말소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F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가 F에게 280,523,4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5510(본소), 2021가합409861(반소), 수원고등법원 2022나27105(본소), 2022나27112(반소)].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와 관련한 위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F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됨으로써 E 임야 1456㎡의 근저당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반면, 원고는 F보다 후순위 권리자임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15억 6,0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F이 E 임야 1456㎡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얻은 이득의 범위 내에서 F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519,636,649원인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 대 2480㎡ 및 그 지상건물과 G 도로 41㎡가 동시에 매각되었고, 위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470,640,000원, 605,972,928원 및 3,920,000원이며, 실제 배당할 금액은 1,799,113,17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E 임야 1456㎡의 매각대금은 746,620,584원[= 1,799,113,179원 × 1,470,640,000원 ÷ 2,080,532,928원(= 1,470,640,000원 + 605,972,928원 + 3,920,000원) × 1456㎡ ÷ 2480㎡]이므로, F은 위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액 519,636,649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고, 원고는 F보다 후순위 권리자로서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279,476,530원(= 1,799,113,179원 - 519,636,649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1,560,000,000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1,279,476,530원을 초과한 280,523,470원(= 1,560,000,000원 - 1,279,476,530원)을 부당이득으로 F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F의 배당절차 누락으로 인하여 얻게 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은 'F의 참여 하에 배당절차가 실시되었을 경우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넘어선 초과 배당액 부분에 한정된다.

다. 원고는 2024. 6. 28. F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F에게 판결금을 지급함으로써 선순위 권리자인 원고가 그 금액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게 된 반면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각 배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C유한회사에 대하여

피고 C유한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유한회사는 원고에게 20,615,86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4. 11.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제1의 나.항 판결이유에 따르면, F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면 원고는 1,279,476,530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따라서 1,518,589,709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실제 이를 초과하여 1,560,000,000원을 배당받았기에 그 초과된 부분에 한하여 원고에게 반환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F에게 판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이 본래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만을 배당받은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유한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배 당 표

사 건 부동산임의경매 (중복)

배 당 할 금 액		금	1,810,134,262	
명 세	매 각 대 금	금	1,809,990,000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	금	0	
	전경매보증금	금	0	
	매각대금이자	금	144,262	
	항고보증금	금	0	
집 행 비 용		금	11,021,083	
실제배당할 금액		금	1,799,113,179	
매각부동산		1. ○○도 ○○시 2. ○○도 ○○시 3. ○○도 ○○시	도로 41m' 대 2480m'	
채 권 자		유한회사	○○시	○○시
채 권 금 액	원 금	1,300,000,000	2,559,240	124,959,420
	이 자	270,334,015	0	2,079,320
	비 용	0	0	0
	계	1,570,334,015	2,559,240	127,038,740
배 당 순 위		1	2	3
이 유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의 승계인	교부권자(조세)	교부권자 (토지개발부담금)
채 권 최 고 액		1,560,000,000	0	0
배 당 액		1,560,000,000	2,559,240	127,038,740
잔 여 액		239,113,179	236,553,939	109,515,199
배 당 비 율		100 %	100 %	100 %
공 탁 번 호 (공 탁 일)		(금 제 호)	(금 제 호)	(금 제 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5

채 권 자		공단	기금	
		지사		
채권금액	원 금	8,556,310	1,335,168,559	850,000,000
	이 자	0	243,309,299	0
	비 용	0	0	0
	계	8,556,310	1,578,477,858	850,000,000
배 당 순 위		3	4	4
이 유		교부권자	가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채 권 최 고 액		0	1,350,000,000	850,000,000
배 당 액		8,556,310	27,831,423	17,523,488
잔 여 액		100,958,889	73,127,466	55,603,978
배 당 비 율		100 %	2.06 %	2.06 %
공 탁 번 호 (공 탁 일)		금제 호 (. . .)	금제 호 (. . .)	금제 호 (. . .)
채 권 자				
채권금액	원 금	63,009,880	34,305,127	1,000,000,000
	이 자	15,315,294	0	0
	비 용	0	0	0
	계	78,325,174	34,305,127	1,000,000,000
배 당 순 위		4	4	4
이 유		신청채권자(일반채권)	배당요구권자	가압류권자
채 권 최 고 액		0	0	1,000,000,000
배 당 액		1,614,742	707,230	20,615,869
잔 여 액		53,989,236	53,282,006	32,666,137
배 당 비 율		2.06 %	2.06 %	2.06 %
공 탁 번 호 (공 탁 일)		금제 호 (. . .)	금제 호 (. . .)	금제 호 (. .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5

채 권 자		주식회사	공사	
채 권 금 액	원 금	124,514,224	1,460,000,000	0
	이 자	0	0	0
	비 용	0	0	0
	계	124,514,224	1,460,000,000	0
배 당 순 위		4	4	
이 유		배당요구권자	가압류권자	
채 권 최 고 액		0	1,460,000,000	0
배 당 액		2,566,969	30,099,168	0
잔 여 액		30,099,168	0	0
배 당 비 율		2.06 %	2.06 %	
공 탁 번 호 (공 탁 일)		금제 호 (. . .)	금제 호 (. . .)	금제 호 (. . .)
2018. 4. 19.				
사법보좌관				